

# 해남군,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 대비 총력

### 지난 5월 이어 2차 하천 일제 안전점검 실시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도 추가피해 예방 만전

해남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하천 안전점검을 거듭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지방하천과 소하천 일제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이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 수해복구가 진행중인 사업현장을 중점 점검 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 현장 중 해남군에서 발주한 복구사업은 농작물 재배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준공됐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대흥사천, 현산천, 조산천, 구산천 등 지방하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장마철을 대비해 위험구간에 콘크리트 방수포 등을 설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문화재지표조사 등 14개에 이르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사업 착수까지 통상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지만 군은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의로 11개월만에 공사에 착공했다. 군은 공사 완료 하천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락 구간에 대하여 추가 공사를 발주하는 한편 관내 오수, 우수, 배수로 등의 퇴적토 및 쓰레기를 제거하여 역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대행업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레기를 제거하여 역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대행업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야외 활동 '진드기 조심' 진도군, 감염병 주의보

진도군이 최근 국내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4월에서 11월 중 중장년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발생하며, 치명률이 높음에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농작업과 산책·산행 등 주민들의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는 여름 시기에 맞춰 농촌 고령자의 예방수칙 홍보를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긴팔, 긴옷, 목이 긴 양말, 장갑 등을 제대로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피하고 기피제 사용과 외출 후에는 곧바로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의 분리 세탁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갑작스런 발열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군, 271km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완료

### 12개 읍면에 18억 투입, 산림·해양 경관 즐길 수 있는 코스 조성

완도군에서는 산림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12개 읍면에 총 18억 원을 투입하여 숲길, 임도 등 약 271.4km 구간에 완도만의 독특한 산림·해양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1차 연도에는 완도읍과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에 1단계 구간을, 2차 연도에

는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청산면 등에 2단계 구간을 조성했다. 올해는 노화, 소안, 보길 등에 3단계 구간(총 102.6km)을 조성하였으며, 3단계 구간은 가학산과 격자봉을 중심으로 트레킹 코스 신설 및 정비, 쉼터 조성, 돌계단 보수, 안내판 설치 등 숲길을 이용한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했다. 특히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자연물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현장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

는 목재 제품을 사용해 이질감을 최소화했다.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숲과 바다, 섬이 어우러진 완도만의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산림과 해양이 어우러진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 산림·해양치유의 중심지, 건강의 섬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카페 창업 푸드 교육 참가자 모집한다

11일까지 10명 선착순...수강료 무료

강진군은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카페 창업 푸드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은 2019년부터 브런치카페 창업교육, 제과제빵기능사 취득과정 등을 운영해 관내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카페푸드 교육은 썬랩스튜디오 황정희 대표가 강사로 참여하며, 카페에서 취급하는 디저트, 음료, 소스, 잼(젤) 만들기 등 기존 창업자들도 어려워하는 다양한 카페메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판매 마케팅에 중요한 제품 포장과 플레이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강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오는 11일까지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대구면 강진청년문화장작소에서 진행한다. 수강비는 무료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화 '한산' 개봉 앞두고 '명량해상케이블카' 관심 급증... '명량MR시네마'까지 무료

### 국내 최초 MR 기술로 현실-가상 결합...명량대첩 10분 동안 생생 재현

여름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는 7월 명량해상케이블카에서 방문한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7월 한 달 동안 명량해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 소지자는 기존에 진도타워 무료입장에 추가로 진도타워 4층에 위치한 명량MR시네마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도-해남 사이 약 1km의 울돌목 해협을 횡단하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전담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남 가볼 만한 곳으로 왕복 약 20여 분 동안 울돌목 회오리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코스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나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한산-용의 출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작인 이순신 장군의 '명량' 촬영지이자, 명량대첩 현장인 이곳 울돌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명량해상케이블카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명량MR시네마를 통해 명량대첩 현장에서 그날의 전투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명량MR시네마는 국내 최초 MR(Mixed Reality) 기술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정보를 결합시켜 현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 바다 위에 명량대첩 전투를 약 10분 동안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이색적인 영상관으로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교육 효과와 함께 재미까지 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7월 여행지나 국내 여름 여행지를 찾는 분들에게 이번 혜택을 통해 퀄리티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자녀와 함께하는 여름휴가 추천 코스가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최적의 장소"로 힐링과 역사체험을 동시에 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해남 스테이션에서 바닥이 유리 되어있는 크리스탈 캐빈을 탑승하시고 울돌목 회오리를 가장 가깝게 보고, 듣고, 느끼신 후에 진도타워와 명량MR시네마에서 1597년 9월 울돌목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명량대첩 그날의 박진감 넘치는 역사적 전투를 온몸



으로 느끼기를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